



## 요약

### 사설

기도하는 여인, 동정녀 마리아.

### 양성 여정

파티마 대회: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

###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의 편지.

###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8. 신심회를 위한 봉사.

### 가족의 연대기

-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XLI - 그룹별 최종  
요약: 아드마.

- 앙골라 - 도움이신 마리아 순례 도움의 순례.

- 메데인의 아드마, 키아라 총장 수녀를 만나다.

- 줌(Zoom)으로 하는 기도로 성장하는 일본  
ADMA.

- 2024년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IX  
대회: 등록.

## 사설

### 기도하는 여인, 동정녀 마리아

P.1

사랑하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신심을 지닌 여러분,

P.3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성모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그녀에 대해 모르고 있을 때, 그녀가 다윗 가문의 한 남자와 약혼한 단순한 소녀일 때,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자렛의 소녀가 침묵 속에서 이제 그녀에게 사명을 맡기실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은총이 충만하고 임태할 때부터 원죄가 없었지만, 놀랍고 특별한 소명과 앞으로 항해해야 할 폭풍우 치는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의 큰 무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P.5

P.6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이끌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자기 삶의 길에서 고삐를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위대한 사건의 준비에 기꺼이 순응했습니다.

P.7

P.8

P.8

P.8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으로 알림을 하러 왔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 피조물에게 기쁨을 안겨준, 작지만 무한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마리아의 응답처럼, 구원의 역사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와 수많은 신뢰와 순명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느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즉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열린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더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겸손하게, 말하자면 겸손하고 단순하게,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루종일 여러 문제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은총의 도구이기에, 모든 상황을 사랑 안에  
봉헌하면서, 겸손한 사랑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은 단순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른 말이 필요 없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안절부절 못함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 구하기 전에  
먼저 원하고, 그것도 즉시 원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함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기도는 받아들임 안에서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기도는  
나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천사의 알림을 받았던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예’가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가져올지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매일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만  
나의 모든 발걸음에 당신이 현존해 주신다는 것을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현존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기도의 끝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신 은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도로 동반했으며, 마지막에는 초대교회의  
첫 발걸음에도 계속 동반하셨습니다(사도행전 1,14  
참조).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을 겪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에 굴복한 후, 후회하며  
울었던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아드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던 사람들과  
여인들 사이에 현존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들 가운데서  
사제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여는 그녀의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이제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성령을 기다리며  
교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제자들 사이에 현존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언제나 침묵 안에서, 마리아는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 단 한  
번, 가나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축제가 끝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의 아들에게  
간청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 말입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광경과 술이 없어 우유를 내놓게 되어,  
잔치가 끝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리아의 현존은 그 자체로  
기도이며,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녀의 현존도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교회를 낳으시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이것이 예수의 유년시절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가가  
주님의 어머니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성모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모님은 곰곰히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두웠던 순간들, 성모님조차도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통해  
걸러지고 기도로 변화됩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이나  
이집트로의 피난, 그 끔찍한 수난의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어떤

## 사설

이는, 기도로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인내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마음을, 찬란한 진주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천상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침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 교회의 선의 씨앗으로 자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교리가, 우리의 내적인 삶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봉사와 사랑이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한드로 구에바라

## 양성 여정

### 파티마 대회: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

최근에 있었던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에,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가 주최하고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제9회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개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모님께 맡기고 크나큰 감사를 드리는 이 순간을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회는 1917년 성모 마리아가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나타나 전 세계를 기도와 참회에 초대했던 마리아 성지인, 포르투갈 파티마 ‘바오로 6세’ 관에서 열립니다.

2024년 돈 보스코 9살 때 꿈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나는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로 정해졌습니다. 이 꿈은 돈 보스코의 가슴에 깊이 남아, 평생 동안 그를 동반했던 꿈입니다. 이번 대회의 강사이신 안드레아 보졸로 신부는, 살레시오의 ‘창립 신화’는 여전히 오늘도 ‘거룩한 장’입니다. “오늘도 같은 에너지로 일하며, 마음을 움직이고, 인내로운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안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유언과도 같은 살레시오 성소의 구성 요소”가 효과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꿈에서 출발하여, 꿈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나누고 싶은 소망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더욱 더 예수님을 향해서 보다 가난한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인도하고 동반하는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향한 여정에서 살레시오 가족 전체와 동행하고 인도하는 어머니이자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의 양성 여정은 9살 꿈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5 가지 주제와 10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꿈의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오라토리오 사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육적 카리스마, 성화의 길인 예방교육, 구체적인 일상적 삶 안에서 소년 소녀들에게 다가가는 은총의 교육학, 축제의 교육학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보스코의 꿈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삶의 신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것, 따라서 신앙, 성소식별, 영적 투쟁, 굴욕과 영광, 십자가와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 보스코가 그의 소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룩한 기쁨”的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름의 신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남과 선포, 회심과 믿음, 머무름과 일하기, 관상과 행위, 전례와 사도직으로, 이는 현존하시는 신비의 하느님 체험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독특한 양식인 친절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에서 영감을 받은 사랑의 교육학, 즉 겸손과 온유, 자비와 친근함으로 특징지어지는 관계의 교육학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정의가 자비로 받아들여지며,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새로운 교육학이며, 이 교육학은 고대의 엄격주의와 현대의 느슨한 교육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9살 꿈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입니다.** 이 주제는 하느님의 계획을 통해, 교회의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면모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동반과 응답이 있어야 하며, 교육은 항상 요구와 인내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심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큰 행사의 준비와 실현을 모든 살레시오 가족의 기도에 맡깁니다.



##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 양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의 편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회의 150년을 되돌아보며, 총장신부는 초창기의 삶에 대해 감사드리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거룩한 창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하여, 모든 젊은이, 어린이, 청소년, 특히 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새로운 복음화와 교육적 활력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 하시도록 맡기자”고 말합니다.”**

가족과 새로운 세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인적인 우정, 모든 이들에 대한 개방성, 봉사 정신을 키우고 육성하며, 마리아의 십자가와 시련의 시간에서의 충실성,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정신, 마리아의 심오한 복음적 자세를 우리 것으로 하여 도움이신 마리아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회는 마리아의 도움과 모성애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신원현장 37조는

“마리아께 대한 의탁은 우리 영성의 특징이 된다. 의탁은 상향적인 행동이다. 실현해야 할 사명에 관대하게 응답하기 위해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향적인 움직임도 있다. 돈 보스코를 인도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한 영적 가족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와 감사로 맞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회는 전 세계의 살레시안들을 비추는 빛이시며, 마리아와 함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족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젊은이와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살레시오 가족에게 아름다운 항해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교회적 모성애의 절묘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성령의 가장 높은 협력자이신 성모 마리아를 항상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믿고, 맡기고, 미소 지으며,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마리아 아델레와 안드레아 다미아니



#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 8. 신심회를 위한 봉사

토리노 발도코 ADMA프리마리아가 입회지원자들에게 제안하는 양성과정에 대한 장의 마지막인 8조는 지역 차원에서 세계 차원으로의 구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우리 회의 기본 핵심은 지역에 설립된 지회이며, 무엇보다 먼저 지회의 생활이 촉진되고 보살펴져야 합니다. 각 지회는 형제적 봉사를 위하여 지역평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역평의원은 후보자들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지역평의회는 지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재무, 서기 등 적절한 수의 평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남·여 영적활성자는 당연직 위원입니다. 지역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4년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역평의회가 선출되면 각 위원의 임무가 결정됩니다.

지역평의회가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지회의 삶과 이니셔티브에 많은 회원들을 참여시키려 노력할 때 지회가 활성화됩니다. 봉사 정신, 형제애, 적극적인 협력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평의회 활동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 회원들의 양성과 사도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홍보하며 조정합니다.
- 살레시오 가족 협의회에 참여하여 살레시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 모임에 대해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 지회 자산을 관리합니다.
- 입회지원자의 양성 여정을 동반합니다.
- 각 구성원의 기술과 영적 재능을 가치화합니다.
- 회원들이 충실하고 능동적인 성소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실시합니다.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실행을 감독하며, 회를 대표하고, 살레시오 가족 협의회에 참여하며, 지역평의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합니다.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필요한 경우, 회장을 대리하지만, 항상 회장과 합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재무는 예산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이는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당국과 연차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기는 회의록, 문서 등록 관리, 회원과 입회지원자 명단 관리 및 업데이트, 지회 편년사를 작성합니다.

지회의 영적활성자는 살레시오회 관구장 또는 살레시오수녀회 관구장이 임명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살레시오 영성과 지역 교회와의 친교를 돌봅니다. 이 사도직은 회의 평신도적 성격과 평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수행되어야 하며, 모욕적이거나 대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살레시오 가족 다른 그룹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지회를 지도하고 조정하며 활성화하기 위해, 관구 차원의 위원회를 조직한다.

관구위원회는 지회 회장들이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재무, 서기 등 적절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구위원회는 ADMA의 신원의식 강화와 각 지회들을 촉진하여 지회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된다.

관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양성 및 사도직 그룹을 위한 이니셔티브 계획, 홍보, 조정한다.
- 지회 간의 협력 촉진, 만남, 평의회의 임무 지원한다.
- 신심회의 지침에 따라 지역위원회와 함께 초기양성과 평생양성 과정 수립한다.
- 관구위원회로서 살레시오 가족의 생활에 참여한다.
-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순간과 회원으로서의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제공한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적정한 수의 조정자와 영적활성자로 국가 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 조정기구는 개별 관구과 국가의 헌법과 규칙에 따릅니다.



ADMA의 규칙은 돈 보스코 살레시오회와 그리스도인의 마리아 도움의 딸들과의 친교 안에서, 조정과 활성화를 위해 세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 위원회는 프리마리아 회장의 책임 아래 소집되며, SDB총장의 대리인 부총장, FMA 가족담당 총평의원, 프리마리아 회장과 영적활성자, 여러 지역 대표들로 조직됩니다. 봉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계위원회는 6년에 한번 열립니다. 대표적인 모임은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이며, 이 대회는 프리마리아 평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국가와 세계의 다양한 관구위원회와 조정기구들은 활성화와 지원, 동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의 삶과

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두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교회법인으로서 협회가 교회의 법률과 여러 국가 법률에 따라 취득, 소유, 관리 및 양도할 수 있는 물질적 자산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 규칙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도, 프리마리아의 텍스트가 공식적이며, 그러므로 이에 충실히 부합해야 한다.

지안 루카와 마리안젤라 스페쏘

## 가족의 연대기

###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XLI - 그룹별 최종 요약: 아드마

#### 개인생활의 강화

• 세례의 은총으로 싹튼 평신도 차원에 대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또한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 영적 개인 양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체성사와 마리아의 동반으로 강화되기.
-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용기 있는 평신도로서 누룩 되기.

- 가족 정신을 발전시키고 모든 이와 소통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아 단순한 몸짓으로 일상생활에서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사도적 헌신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 서로를 위해 중재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한다.

####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함께” 강화할 점

• 평신도, 수도자와 사제들을 위한 ‘오늘날의 평신도’에 관한 양성 과정.

•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기: 혼자가 아니라 그룹들이 함께 하는 상호 보완성.

• 사명을 위해, 일치를 근본으로 들보기 위해,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 신심회 생활에서 강화될 점

• 교황님의 말씀처럼,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 대화하고 환영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밖으로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양한 현실에서 만나는 이들과 대화하도록 합니다.

#### • 특별한 주의 기울이기

- 젊은이 커플/가족과 성인들과 함께 걷고 동반합니다.

## 가족의 연대기

### 앙골라 - 도움이신 마리아 순례 도움의 순례

**Ndalatando, 2023년 5월 19-21일**

“이방인의 빛이신 마리아와 함께, 시노드의 길에서”라는 모토로 Ndalatando(Kuanza Norte)에 있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로 향하는 살레시오 가족의 전국 순례가 큰 열정과 참여로 재개되었습니다.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많은 신자들이 카빈다, 후암보, 벵겔라, 돈도, 비아나, 팔랑카, 카쿠아코, 삼비장가, 팔랑카, 상파울루 등 앙골라의 여러 본당과 살레시오회 사목터에서 은달라탄도에 도착했습니다.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오전에 두 대의 기차에 500여 명(주로 젊은이들)을 태우고 출발하여 오후에 은달라탄도(철도로 250km!)에 도착했고, 다른 곳에서는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왔지만, 모두 기도와 묵상, 축하의 마음으로 이 순례를 경험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개막 미사는 돈 보스코 학교 안뜰에서 4,000여 명의 신자들로 꽉 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본당 신부 지노 파바로 신부는 신자들이 교회의 삶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리아의 중요성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은 앙골라 살레시오 관구장 마누엘 캄반제 신부가 미사를 주례하고 여러 살레시오 사제들이 공동 집전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도시에서 2.5km 떨어진 새로운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 건설을 위해 지방정부가 약속한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앙골라 살레시오회 관구장 마르틴 라사르테 신부가 모든 신자들에게 성모송을 바치자고 초대했고, 신자들은 모두 큰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꿈이 실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돈 보스코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 함께 바쳤던 성모송이 바로 살레시오회 사업의 시작이 된 것처럼.... 이곳에서 마리아를 기리는 이 새로운 일이 실현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시의 많은 본당에서 온 신자들이 순례자들과 합류하여 성모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밤 9시에 철야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음악, 노래, 활성화된 기도, 초대된 예수 형제회와 함께하는 ‘매듭을



풀어주시는 마리아' 묵주기도를 드리며, 평화가 없는 상황, 실업, 폭력과 악 앞에 노예가 된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 많은 엄마들은 자신들의 모든 걱정을 마리아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인 일요일 아침, 순례를 마무리하는 축제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마틴 신부는 강론에서 교회의 삶에서 마리아의 현존과 예수 승천 대축일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서 ...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구절과 돈 보스코가 토리노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 써놓은 “이곳은 나의 집이며, 여기서부터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는 문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고백이 있기 전, ADMA 그룹들의 서약 간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영광’은 이 거룩한 날들을 충만하게 했고, 모든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으며,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가족과 이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빛’으로 현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 가족의 연대기

### 메데인의 아드마, 키아라 총장 수녀를 만나다

4월 16일, 세계 감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키아라 총장 수녀가 콜롬비아를 방문했을 때, 메데인의 살레시오 가족은 키아라 총장 수녀와의 만남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메데인에서 활동하는 살레시오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키아라 총장 수녀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해, 계속 친교를 나누자고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ADMA 가족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ADMA, ADMA 성인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총장수녀님과 특별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줌(Zoom)으로 하는 기도로 성장하는 일본 ADMA



2023년 5월 27일 성령강림대축일 전날, 사이타마 지방(수도권)에 있는 혼조 성당에서 18명의 새 회원들이 ADMA(도움이신 마리아 회)로 서약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브라질, 폐루, 볼리비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치바, 쓰즈키, 미시마, 오이즈미, 오타, 이세사카, 카조, 요리이, 도코로자와 등 여러 도시와 장소에서 왔습니다. 도쿄와 하마마츠의 ADMA 회원들도 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원들은 줌 모임을 통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ADMA에 대한 신원을 성숙시켰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ADMA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 60명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라틴어, 크로아티아어 또는 콩고 방언).

매일 밤인사가 시작되면 영적활성자가 그날의 성경 본문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주일 복음에 대해서 합니다. 수요일에는 일본어로, 토요일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ADMA 회원들의 열정과 확산시키는 기쁨으로 ADMA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날들에 함께 해주신 도움이신 마리아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2023년 9월 24일부터 등록

[www.mariaauxiliadora2024.pt](http://www.mariaauxiliadora2024.pt)